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 지역 공동체 살리기 프로젝트 봉사

동강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비아저수지 환경미화 등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이 지난 19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일대에서 지역 공동체 살리기 봉사 프로젝트 '비아를 상상하다' 행사를 주최했다. <사진>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KT&G 상상프렌즈, 조선대 국제협력팀과 봉사동아리 당나귀, 그린액션 등 총 110여명의 대학생 봉사자를 비롯해 조선대 외국인 대학생 40명,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비아동 주민센터 등이 참여해 비아동 일대의 경로당 정비, 비아저수지 환경미화, 감농가 일손돕기 등을 함께 했다.

또 KT&G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은 이날 농가를 도운 뒤 받은 감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봉사에 참여한 전남대 이현승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보



탐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국인 대학생들과 함께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T&G 상상유니브는 독창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 대학생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출범해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과 교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간호학과(학과장 정은서)는 최근 학교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제2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2학년이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간호전문직업인으로 발돋움하는 예비간호사로서의 마음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동강대 제공>

광주전남병무청, 사회복지요원 관리 직원 전문교육

한겨레신문 고명섭 기자

전남대서 25일 인문학 강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최근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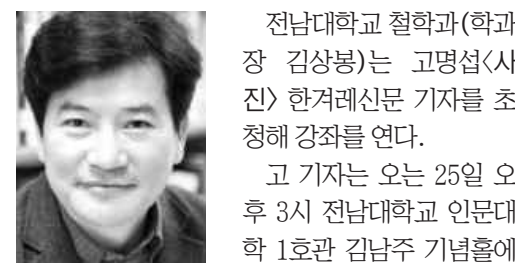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광주, 목포, 여수순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복무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전남 지역 1200여개 복무기관 담당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사회복지부 포털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영명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복무기관 담당자가 공감하고 만족도가 높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학교 철학과(학과장 김상봉)는 고명섭(사진) 한겨레신문 기사를 초청해 강좌를 연다.

고 기사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열릴 강좌에서 '궁핍한 시대의 철학하기' (하이데거와 함께 철학과 삶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니체 극장', '하이데거 극장', '즐거운 지식', '담론의 발견' 등 다양한 통찰을 담은 인문서를 냈다.

이번 강좌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극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2022년도 인문학 대중화 강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봉사대, 농촌 일손돕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봉사대는 최근 자매마을인 황월마을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대원 20여명은 일손이 부족한 취약계층 농가를 방문해 수확이 끝난 고추밭 비닐을 걷어내고 마른 고추가지를 정리하

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학웅 대외협력처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본부가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매마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굿모닝 카타르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라이트 모닝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 20 팔도법상(재)	00 커튼콜(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00 애니갤러리 30 슈퍼다이너 45 하나와 숲속친구들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2002 월드컵 20주년 특집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12뉴스 1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5 메카드볼 대가(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살 몽계공항(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3]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살 몽계공항(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달리는 폴코스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마카엔로니 2 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30 풀쩍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2002 월드컵 20주년 특집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5 닥터 365 30 2022 카타르 월드컵 F조 <모로코> 크로아티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언니랑 놀래?	50 태풍의 신부	1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프리뷰쇼 카타르시스 40 MBC 뉴스데스크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특집 로드 투 카타르 (E조)		
[9]	00 KBS 뉴스9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E조 <독일> 일본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E조 <독일> 일본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2022 카타르 월드컵 E조 <독일> 일본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11]	30 KBS 뉴스라인			
[12]	10 레전드 기적의 스타디움(재)	1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E조 <스페인> 코스타리카	05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E조 <스페인> 코스타리카	00 나이트라인 30 2022 카타르 월드컵 E조 <스페인> 코스타리카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즈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네가 빠진 세계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50 건축탐구-집
08:00 똥덩양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5 한국의 둘레길	<골목에 빠지다, 모로코 -황금 바다에 빠지다, 사하라>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천사들	<가을 뜨락에서 3부 그남자의 자연 놀이터>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EBS 친구들 생생	16:15 페퍼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30 어떻게 만들까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똥덩양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 (음 10월 30일 庚辰)	☎ 010-9790-8237
<p>子 36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으니 속히 조치하여야만 한다. 4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60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실하게 된다. 72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하리라. 84년생 손톱이 가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96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56</p> <p>丑 37년생 발전의 기운이 융솨솨치는 형상이로다. 49년생 너무 가까이하면 때가 묻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라. 61년생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능률적이다. 85년생 옛일이 고풍하나 큰일은 아니다. 97년생 갑갑해 있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행운의 숫자 : 11, 90</p> <p>寅 38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50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62년생 약하게 대응한다면 잃게 될 수도 있다. 74년생 주동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86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98년생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3, 84</p> <p>卯 39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51년생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다. 63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될 것이다. 75년생 잡다함을 차지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87년생 실적이 쌓이고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다. 99년생 기대에는 어긋났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51</p> <p>辰 40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겉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52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64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길리라. 76년생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88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00년생 손재수가 비치니 제반사에 조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0, 82</p> <p>巳 41년생 어설피게 행하러거든 아니랄만 못 하니라. 53년생 기법적 여겨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65년생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전된 도량을 형성하게 되리라. 77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89년생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01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27, 89</p>	<p>42년생 지금, 본래를 보여 줘야 할 때가 되었다. 54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66년생 눈요기에 그쳐야지 덩석 몰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78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하는 것이 옳다. 90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02년생 크게 한숨 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4, 67</p> <p>43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라. 55년생 감각이 둔해지면 자주 실수를 반복하는 형상이로다. 6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79년생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이다. 91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03년생 무리하지 않게 조절하라. 행운의 숫자 : 26, 69</p> <p>44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도다. 56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68년생 종합적인 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80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92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04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28, 94</p> <p>33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45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57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9년생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풀러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 81년생 불면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93년생 꼼짝 할 여유마저 없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21, 68</p> <p>34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에 주목하라. 46년생 추구해 왔던 가치나 지탱하고 있는 기운이 점점 소멸하여가는 판국이 될 것이다. 58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70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82년생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94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77</p> <p>35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47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59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71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꼭 이루리라. 83년생 고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95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02, 97</p>